

2023.12.05

싸이토젠 (217330)

바뀌고 있는 회사. 신사업 기대됨.

● 기업소개 - 혈액을 통한 암 진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싸이토젠은 암 액체생검 전문 기업이다. 액체생검은 혈액을 통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뜻한다. 보통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생검(Tissue biopsy)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폐암의 경우 바늘이나 흉강경을 이용하여 몸에 구멍을 뚫고 암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게 된다. 반면 액체생검의 경우 혈액만 뽑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생검 대비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암 환자의 혈액에는 CTC(Circulating tumor cell, 순환종양세포)라는 암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존재한다. CTC는 암 전이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극소수만 존재하여 매우 잡아내기가 어렵다. 싸이토젠은 독자 개발한 고밀도미세다공(HDM) 칩을 이용해 혈액에서 CTC를 세포단위로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환자의 CTC를 확보하여 조직생검을 하지 않고도 암을 진단하고, 암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유망 기술이라 볼 수 있다.

● CTC 액체생검 상업화 열심히 진행 중이다.

>> 물론 CTC 액체생검이 정확도 면에서 조직생검을 100%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나, 액체생검의 쓰임새는 매우 많다. 먼저, 손쉬운 CTC 액체생검을 통해 환자의 암 변이를 꾸준히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 돌연변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맞춤형으로 처방할 수 있다. 또한 확보한 CTC를 배양하여 특정 약물의 반응성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CTC를 활용해 항암제 신약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겠다.

>> 동사 CTC진단 제품은 아직까지 규제기관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까지 식약처와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2년 ExperTox라는 클리아랩(FDA 승인 없는 진단서비스 가능한 기관)을 인수했으며, 클리아랩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CTC진단 서비스를 팔 계획이다.

>> 동사는 CT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NIH(미국국립보건원), CEPM(뉴욕정밀의료센터), 다이치산교 등에 CTC 진단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며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아직 동사의 CTC진단 매출이 크지는 않으나, 향후 글로벌 CTC진단 시장이 활성화되면 동사가 직접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 CJ오너일가의 투자 공시. 경영권 변경 및 신사업 기대.

>> 동사는 지난 11/29일 40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및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정정 공시했다. 증권 인수대상자가 '엑셀시애크피탈'에서 '재산홀딩스'로 바뀌었다. '재산홀딩스'는 CJ그룹 총수일가 이재환 회장이 100% 소유한 회사다. 현재 싸이토젠 주식 19.5%를 보유한 2대주주인 '어센트바이오펀드'의 최대주주도 이재환 회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증자 납입일은 12/15일이다. 납입이 된다면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바뀌게 된다. 향후 경영권 변경 및 신사업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스톡옵션, 개별주식옵션 등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사는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M&A 업무수행,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표되었으며, 홈페이지 공표 이전에 특정기관에 사전 제공 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오병용)

이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